

「 삼광 구역 공과 」

일시: 2020년 8월 30일 (다섯째 주일)

성경본문 : 하박국 2장 4절

설교제목 :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서서는 위기의 때에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십니까?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십니다. 하박국의 시대가 위기의 시대였습니다. 그때 하박국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박국의 이름의 뜻은 ‘**포옹하다**’입니다. 그는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질문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자 한 자였습니다. 하박국의 질문을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질문입니다. 하박국은 충격적인 상황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박국의 질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을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질문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입니다. 하박국과 그 시대의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은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은 신약에 모두 세 번 등장하는 특별한 말씀입니다.(로마서1:17, 갈라디아서3:11, 히브리서10:38입니다.) 하박국에 기록된 구약의 말씀을 신약의 저자들이 3번이나 인용한 것은 초대교회의 상황 역시 믿음을 지켜가기 어려운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주셨던 말씀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초대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박국서의 이 구절은 고난의 시기를 견디는 가장 큰 힘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역시 이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 심각한 위기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기는 삶의 방향을 상실하게 합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게 만듭니다. 삶에 공허함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다른 것에서 상실과 공허를 채우게 됩니다. 위기는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합니다. 이처럼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중요합니다. 말씀이 삶의 방향을 잡아줍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게 합니다. 삶에 의미와 희망을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위기의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야 합니다. 결국 믿음이란, 위기의 순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서 답을 찾아서는 안됩니다. 그렇다면, 하박국의 시대의 위기는 무엇이었습니다? 하박국은 자신의 사회에서 악과 강포를 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악과 강포를 향해 침묵하시며 그냥 나두시냐는 것입니다.(2절) 그렇다면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하였던 그 당시 사회는 어떠했습니까? 하박국은 여섯 단어로 그 당시 사회상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죄악과 패역**’, ‘**접탈과 강포**’, ‘**변론과 분쟁**’입니다.(3절) 죄악과 패역의 문제가 끊임없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접탈**’은 ‘**파괴적인 것**’입니다. ‘**강포**’는 ‘**포악**’이란 말입니다. 여기서 ‘**강포**’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홍수를 인류를 멸망하기 전에 온 땅에 포악함(강포)이 충만했다라고 할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즉 인류가 멸망당한 이유가 포악함(강포)로 인함입니다. 따라서 하박국은 왜 하나님이 강포로 인해 인류를 심판하셨는데, 왜 지금은 강포가 있는데 가만히 계시느냐를 질문하는 것입니다. 또한 ‘**변론**’과 ‘**분쟁**’으로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법이 해이해지고, 그 결과적으로 시행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악인들이 원하는대로 끌고 가기 때문에 정의가 굽게 행하여지기 때문입니다.(4절) 결국 하박국의 질문은 악인이 판을 치는 세상을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라는 질문입니다. 이것이 하박국이 느낀 위기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답은 “내가 놀랄 일을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갈대아 사람을 일으키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일으켜 유다의 강포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합1:6) 이것은 하박국이 원하는 대답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의 강포는 유다 민족과는 비교도 안되기 때문입니다. 강포한 것으로 말하면 바벨론이 최고입니다. 이것은

하박국이 원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다시 질문합니다. 죄많은 이스라엘을 심판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지만, 어떻게 더 강포한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느냐는 것입니다. 하박국의 질문은 ‘어떻게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더 강포한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 하십니까?’라는 것입니다.(13절) 그러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 내용이 하박국 2장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유다를 심판하고 바벨론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묵시를 주시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셨습니다.(합 2:4) 그렇다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믿음이란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일을 풀어 가시는 방법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 삶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라가기로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장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발을 맞추길 원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의 믿음이 가장 많이 흔들릴 때가 언제나면 내가 생각하기에 결코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인정할 수 없는 상황이 나에게 발생했을 때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항상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합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결국 믿음은 하나님의 왕되심과 선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방편입니다. 믿음은 왕되시고 선하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통로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반대는 교만입니다.(합2:4) 교만은 자기의 이해와 판단에 하나님을 끼워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해와 판단이 하나님보다 옳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가 판단의 주체가 됩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개인이나 열방을 심판하실 때 그 근거가 교만함입니다. **믿음은 여호와를 신뢰하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박국서에서 하나님이 정의하신 의인은 고달픈 현실에서 세상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고, 그분의 주권을 신뢰하는 자입니다.

***구역공과를 가지고 스스로 묵상하시거나, 구역마다 대화방을 만들어 함께 나누어 봅시다.**

※.말씀 생각해 보기

- 1) 하박국 시대의 위기가 어떤 것이었는지 설명해 봅시다.
- 2)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해 봅시다.

※.말씀 나누고 적용해 보기

- 1) 이번 주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 2) 위기의 순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위기의 때에 하나님은 말씀을 주셔서 위기를 극복하게 하십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간증이 있으면 구역원들과 함께 나누어 봅시다.
- 3) 오늘 말씀을 통해 앞으로 내가 달라져야 할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무엇입니까?